

공동체 소식



삼위일치대축일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참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송하게 하소서.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미국 교포사목 청주교구 사제단 모임

- 일정 : 06/06(수) 18:00 - 08(금) 18:00.
- 공동집전미사 : 06/06(수) 저녁 6:30.
미사 후 공동체 식사 있습니다.

첫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일시: 6/2(토), 10:00, 묵주기도와 함께.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전례 성가

Table with 5 columns: Song Title, Start, Example, Church, and Page. Rows include '금주' and '차주'.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Day, Homily, and Scripture. Rows include '금주' and '차주'.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Day, Reader, and Scripture. Rows include '금주' and '차주'.

애찬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Day, Name, and Role. Rows include '금주' and '차주'.

헌금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Day, Name, and Amount. Rows include '금주' and '차주'.

우리들의 정성

Table with 4 columns: Date, Members, Amount, and Total. Includes a note about the Mother's Night offering.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미사를 시작하며 사제는 성호를 긋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 삼위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은총과 사랑과 친교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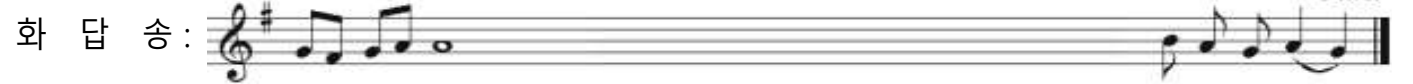
그림 묵상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할 길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하느님의 눈을 통해 무한히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선물인 성령께서 모두 한 분이신 하느님임을 작은 가슴으로나마 깨닫게 하소서.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서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4,32-34.39-40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다. 다른 하느님은 없다.>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14-17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6-20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생명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작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배우 故 김지영(막달레나) 자매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자매님은 서울주보 '말씀의 이삭'에 신앙으로 고백한 글을 실어서 많은 신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어려운 순간을 극복했다 싶으면 늘 곤경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삶을 마지막까지 지탱해 준 것은 믿음의 끈이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자매님에게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못 할 때는 울음을 참고 그냥 손으로 십자가를 그으며 성호경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쳤습니다. 계속 해서 십자가를 그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래도 성호경을 바치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시라는 신비를 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성자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며, 성령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성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성호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끔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이 성호경을 긋는 것을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공공장소에서 성호경을 바치는 것은 자신이 신자임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몹시 필요합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선교이며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직장이나 밖에서, 식사를 하기 전 성호경을 드리는 것만으로 훌륭한 선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참조)고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니 얼마나 안심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삼위일체의 신비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깨닫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능력과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신비는 곧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할 길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하느님의 눈을 통해 무한히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누군가의 눈빛이
궁금하여 묻는다면 따뜻한 눈빛을
의심하여 묻는다면 차가운 눈빛을
보여줄 것이네.

궁금하다는 것은 가까이 가겠다는 것이고
의심한다는 것은 조금 더 멀어지겠다는 것이지.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마태 28,17)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봉사는 모두의 기쁨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참 다양한 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부 때부터 고등부까지 하느님의 사랑만을 받기만 하다가 학창회장이 되면서 교회를 위해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교리교사, 이후 사목부 봉사자로, 최근까지는 서울대교구 청년부 소속으로 교리교사들과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려 노력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기 전까지 늘 어느 곳에 속해 봉사를 했었기에 봉사의 기쁨을 많이 느껴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해오면서도 늘 '나는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봉사자라는 타이틀이 좋아서 봉사하는 자리에 나가는 제 모습을 발견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허영심을 봉사라는 예쁜 포장지로 감추고 있었던 건 아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 의도야 어떤든 봉사라는 것을 했으니 난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넘기곤 했습니다.

이십 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더 많이 그런 회의감이 들어,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신부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죄책감이 든다고. 사람들과

의 즐거움을 쫓는 제가 부끄럽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쫓는 사람이 하느님일 수 있다. 네가 즐거워하는 자리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 일 수가 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일 수 있다. 봉사를 함으로 네가 기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봉사를 느끼는 사람들이 기쁘면 하느님도 기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봉사만 하지 않았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모두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리이니 저는 그저 즐겁게 봉사에 임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봉사를 함으로써 나만 기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봉사란 상대방도 기쁠 수 있고 함께하는 모두가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봉사란 참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 봉사는 하느님과 함께 기쁨을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주려 노력하면 사랑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사는 행복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승환 레오 | 작가

교리상식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팔을 벌리나요?

사제가 팔을 벌려 기도하는 자세는 하느님을 향해있으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손을 합장한 채 기도하는 것(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자세지만, 주례 사제가 권하여 다 함께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팔을 벌리는 자세는 옆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전례적으로 주님의 기도 때에 손을 잡는 것이 권장사항은 아니다. ... 본당의 날이나 큰 축제일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2019년 총제 주교회의)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교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